

#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 지역공모 선정

‘한국단편경쟁’ 극영화 19편 · 다큐멘터리 1편 · 실험영화 3편 · 애니메이션 2편 선정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는 4월 28일 개막 예정인 가운데 영화제를 통해 소개될 한국 단편경쟁 및 지역공모 선정작이 발표했다.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올해 영화제에 출품된 공모작품 중 극영화 19편, 다큐멘터리 1편, 실험영화 3편, 애니메이션 2편 등 총 25편이 한국단편경쟁 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지역공모에서도 코미디와 스릴러, SF 등 다양한 장르의 5편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한국단편경쟁 선정작은 ▲29번째 호흡(국중이) ▲겹겹이 여름(백시원) ▲그렇고 그런 사이(김인혜) ▲낙미주의(최지훈, 함윤이) ▲머드피쉬(이다현) ▲문제없어요(고경수) ▲버킷(김보영) ▲분더커머 10.(박소윤, 기예립, 정인우) ▲새벽 두시에 불을 붙여(유종석) ▲소문의 진원지(함희운) ▲소진된 인간(김진수) ▲심장의 발레(한원영) ▲아빠는 외계인(박주희) ▲아행성(박지수) ▲어떤 곳을 중심으로 하여 가까운 곳(장윤미) ▲오 줄거늘 나의 집(이해지) ▲유인과 건(강지효) ▲점몽(유진욱) ▲주인들(조희영) ▲차가운 새들의 세계(강예은) ▲트랜지(문해인) ▲트레이드(김민주) ▲한낮의 침입자(김진형) ▲형수마(윤혜성) ▲흰찬이는 자라서(김은희) 등이다.

심사는 영화 평론가 김병규, 손시내, 씨네21-김소미 기자, 이재은·임지선 감독,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진명현 대표 등이 참여했



전주국제영화제 포스터.

상하고,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비상하면서도 다채로운 시도, 그리고 그 또렷한 창작의 의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출품작들은 연애, 그리고 가족관계의 이면을 엿보는 주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연인과 부부의 고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절절하고 이별한 사람들이 중심인 선정작들은 모두 과잉과 혐오에 함몰되지 않은 채 연결, 그리고 유대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담담히 제시한 작품들"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한국단편경쟁작에 이은 지역공모 선정작으로는 ▲마음에 들다(강지이) ▲매일의 기도(김규민) ▲문제없어요(고경수) ▲유실(윤효진) ▲Mercy Killing(김은성) 등 5편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6회째인 지역공모는 전북에 주소를 뒀거나 전북지역 학교의 재학생인 감독, 제작자의 작품, 또는 전북에서 50% 이상 로케이션한 작품들이 응모할 수 있었다.

지역공모작 심사를 맡은 문석 프로그래머는 "올해 출품작들은 지난해에 비해 질적 수준에서 한 단계 뛰어오른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의도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코미디, 드라마, 스릴러, SF, 실험영화까지 뽀개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 “국립전주박물관서 한지공예 체험해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첫 번째 문화행사 ‘한지 색지함 만들기’ 운영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2022년 3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첫 번째 문화행사로 미술공예실 ‘조선시대 색지함(지장함)’ 연계 한지공예 ‘한지 색지함 만들기’를 오는 26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 전주박물관 열린공간 온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지 색지함’은 종이함으로 지장공예 기법으로 제작된다. 두꺼운 배접지나 목재 골격으로 기본 형태를 잡고 안팎으로 한지를 여러 겹 바르는 과정을 거친다.

여러 색지를 붙임으로써 한지의 아름다운 빛깔과 부드럽고 따스한 질감을 살려 만들기에 한지 공예품의 미학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사각함으로 제작해 실용성도 감안했다.

이번 행사는 무료이며, 총 40명(14시 20명/16시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18~23일까지 전주박물관 누리집(jonju.museum.go.kr)에서 예약할 수 있다.

홍진근 관장은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한지공예 체험을 통해 전통공예의 아름다움과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한지공예 포스터.

# 군산대 박규연 교수 피아노 독주회 ‘힐링 판타지’ 개최

군산대학교 음악과 박규연 교수가 피아노 독주회를 연다.

오는 22일 저녁 7시 30분 군산동우아트홀에서 개최되는 연주회에서 박규연 교수는 프레데릭 쇼팽과 윌리엄 올브라이트, 프란츠 슈베르트의 작품들을 연주한다.

주요 레퍼토리는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C장조 작품번호 760)’, 올브라이트의 소곡집 ‘드림락 중 ‘몽유병자의 잔걸음’과 ‘악몽의 환상적인 랙’, ‘백 마운틴의 밤’, 쇼팽의 아상곡 ‘8번 D플랫장조 작품번호 27-2’, ‘13번 C장조 작품번호 48-1’이다.

박규연 교수는 화려한 테크닉과 섬세한 감수성을 가진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군산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후학교육에 남다른 심혈을 기울이면서 군산대 졸업생 주축으로 구성된 전문연주단체 ARMONIA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유능한 음악인을 발굴하고 지역 사회와 문화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기획한 ‘담소-문화를 담다’ 시리즈인 ‘21 마티네콘서트’, ‘2021 뮤직토크 콘서트’, ‘RCC 콘서트 시리즈’를 기획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박규연 교수는 현재 한국피아노두오협회이



사. 한국피아노학회 호남지부 부회장, 국제피아노음악협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 코리안심포니,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이름 바꾼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단체명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새 이름은 오는 22일 정기연주회부터 공식 사용한다.

지난 18일 코리안심포니에 따르면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리안심포니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코리안심포니 이사회는 지난 2월 25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로 명칭 변경을 담은 정관 변경을 의결했다.

코리안심포니 측은 “코리안심포니의 음악적 유산을 계승하고 국립예술단체로의 역할 수행이란 의미를 내포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로 명칭 변경을 추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으로의 명칭 변경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왔으나, 본격적인 절차는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해왔다. 코리안심포니는 음악계 원로, 클래식 음악 관련 단체, 학계, 언론, 유관 국립단체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40명의 의견을 총 2차례 걸쳐 수렴하고, 단체 내부 의견 역시 2차례 걸쳐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KBS교향악단 측은 ‘국립’ 이름 사용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뉴시스

# 백소연 작가 ‘봄빛! 목향에 붓들다’

정읍시 생활문화센터서 25일까지 초대 개인전 진행

봄의 초입, 은은한 먹빛으로 화사한 봄을 그려낸 전시회가 열려 발길을 모으고 있다.



‘시인’으로도 잘 알려진 백소연(사진) 작가의 초대 개인전 ‘봄빛! 목향에 붓들다’가 지난달 26일 신태인에 있는 정읍시 생활문화센터에서 개막돼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는 것.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무료입장이다.

백 작가는 “‘목향에 붓들다’에서 붓들다라는 뜻은 ‘붓을 들다’와 ‘붓들다’ 또는 ‘붓들리다’ 동사의 동의어 의미로, ‘붓끝의 목향에 붓들리다’라는 예술적 감성을 담았다”고 밝혔다.

전시회에서는 시·서화 98점과 천아트 34점 모두 132점을 선보인다.

‘시(詩)와 서(書), 그림(畫)은 물론 음악까지도 넘나드는 탁월한 종합예술인’이라는 백 작가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세한고절’, ‘희망’, ‘기백’, ‘진서체로 표현한 ‘설화(雪華)’와 ‘금시작비(今是昨非)’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

백 작가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중소도시 지역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재미와 볼거리가 있는 전시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며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분께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작가는 검은 나뭇가지에 곱게 핀 흥매로 희망을 전한 ‘희망’과 ‘설리개화’, 난세에도 기백을 잃지 않는 군자의 향기를 담은 ‘기백’ 등 다양한 주제의 시·서화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위로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서예 작품 ‘설화(雪華)’ 역시 눈 속에서 꽃이 피어나듯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곳곳에 잘 이겨내지는 작가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작품으로 꼽힌다. 백 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한국종합미술대전, 대한민국 서도미술대전, 전라북도미술대전 초대전에 참여한 바 있다. 또 시와 수필은 물론 아동문학과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광주대학교 예술대학)에서는 피아노를 전공했다.

관련 전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063-571-5170)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